

“믿음과 헌신, 당신의 십자가 그 길 따르겠습니다”

故 임동선 목사 3주기 추모예배 열려

“고 임동선 목사님의 사역적 열매는 회생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여 예수의 흔적을 가진 목회자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고 임동선 목사 3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22일,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거행됐다.

예배는 김찬우 목사의 사회로 김기성 원로장로가 기도했으며 김지훈 목사가 “높은 부르심”(고린도전서 9:4-1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가족 대표로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인 임성진 박사가 추모사를 전하고 풀러신학교 임윤택 교수, LA



고 임동선 목사 3주기를 맞아 출간된 추모도서 '임동선 목사의 선교신학'을 소개하는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성진 박사(왼쪽)와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오른쪽)

디사이플교회 남종성 목사가 추모서간 기고 후기를 전했다. 추모예배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남윤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설교한 김지훈 목사는 “고 임동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을 내려놓으신 미주 이민교회의 큰 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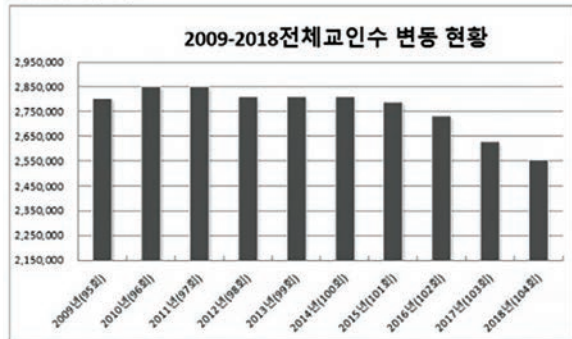
이었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당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기를 쉬지 않으셨다”고 회고하며 “십자가 생

의 복음을 삶으로 보이신 고인의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길 원한다”고 전했다.

추모사에서 임성진 총장은 “고 임동선 목사님은 이민 목회자요, 전도자요, 또 교육자로 활약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자신의 삶을 복음의 열정으로 불사르고 동양선교교회(OMC),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 월드미션대학교(WMU)를 세워 복음 전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놓으셨다”며 “복음 전파를 향한 열정의 불씨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 복음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예장 합동·통합 교인수 감소세 각각 약 11만 명, 7만 3천여명 줄어



예장 통합 통계위원회가 제출한 교세 통계표.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 측은 지난해 교인수가 2017년의 2,688,858명에서 32,092명(-1.2%)이 준 2,656,766명으로 집계됐다.

2,764,428명에서 2017년 2,688,858명(-75,570명), 2018년 다시 2,656,766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 모두 107,662(-3.9%)명이 줄었다.

이밖에 지난해 교회수는 11,885개로 2017년의 11,922보다 37개 줄었고, 같은 기간 강도사수(850→805), 전도사수(12,514→12,443) 모두 감소했다. 목사수(23,726→24,395)와 장로수(21,671→21,893)만 소폭 늘었다.

예장 통합도 교인 수가 감소했다. 제104회 총회 둘째날인 24일 저녁 회무에서 보고된 교세통계 보고에 따르면, 2018년 교단 전체 교인 수는 255만 4,227명으로, 전년도의 262만 7,696명에 비해 7만 3,469명(-2.8%) 감소했다. 이는 유아세례를 포함한 숫자다.

세례교인 수는 171만 6,953명에서 168만 1,531명으로 3만 5,422명

으로 3만 5천여명 감소했다.

교회 수는 9,096곳에서 9,190곳으로 94곳(1.49%)이, 목사 수는 19,832명에서 20,506명으로 674명(3.40%)이 각각 늘었다.

위원회 측은 “교회와 목사, 장로의 숫자는 늘었지만, 세례교인, 전체 교인, 서리집사 수 등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 총회는 2010년 285만 2,3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작년과 올해 보고에서 각각 11만여명과 7만여명 줄어 들었다.

교회 수는 2010년 8천 곳, 2017년 9천 곳을 각각 돌파했다. 목사 수는 2009년 1만 4,997명에서 올해 2

만 명을 넘어섰다. 장로는 2009년 2만 5천여명대에서 10년간 7만여명 늘었다.

저출산 여파 등으로 주일학교 학생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부의 경우 19년 5,275명에서 올해 11만 9,691명까지 감소해 10만명 선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이 외에 모든 부서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영아부 14,934명(-4,154명), 유아부는 2만 475명(-1,129명), 유치부 4만 8,101명(-2,311명), 유년부 4만 4,288명(-1,205명), 초등부는 5만 193명(-1,610명), 소년부 5만 4,687명(-1,569명)이었다.

김진영 기자

번역/공증/파산 **법무사 ~**

- 학교설립 / 인가 전문
 - 연방정부 SEVIS 유학비자 신청
 - 신학/경영대학, 사립초중고교, 홈스쿨링, 유치원
- 교역자 누구나 신학사, 석사, 박사 과정 개설 가능

EG Global LDA Service 생활법률 속성해결사
 T: (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 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교회

주일에배 오전 11:00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일하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네이션 받습니다. (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날마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라우팅 번호 : 122043958
 아카운트 번호 : 06209456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2019 IPCAN KIMNET KINGDOM INTER-MISSIONS NETWORK
일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

킹덤 비전 Kingdom Vision for World Evangelization

일시 : 2019. 10.28(월)~30(수)
 장소 : 은혜한인교회(담임:한기홍 목사)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저녁별회: 선교 부흥회	주제강의 10.29(화)	주제강의 10.30(수)
10.28(월) 호성기 목사 10.29(화) 이성철 목사 10.30(수) 한기홍 목사	조갑진 목사 진유철 목사 허연행 목사 임현수 목사	박바울 선교사 박희민 목사 윤모세, 서병용 목사 오석환 목사 정민용 목사

크리미안 영적 강사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이성철 목사 달라스 중앙연합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주제강의 강사

조갑진 목사 국가기도운동대표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허연행 목사 프리미스교회
 임현수 목사 토론토 큰빛교회
 박00선교사 이집트
 박희민 목사 새생명 선교회
 윤모세 목사 UBF 국제대표
 오석환 목사 KAGMA CGO
 정민용 목사 COVENANT FELLOWSHIP CH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0주년 '뿌리 깊은 영성 세미나'에서 설교하는 게리 토마스



'뿌리 깊은 영성 세미나'에서 설교하는 이동원 목사



'뿌리 깊은 영성 세미나'에서 설교하는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0주년 '뿌리 깊은 영성 세미나' 개최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019 뿌리 깊은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강준민 목사를 비롯해 베스트셀러 영성 작가인 게리 토마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 하워드 베이커 덴버신학교 영성신학 교수, 미 우주항공연구소 스티븐 모리슨 장로 등 한국과 미국의 영성가 10명이 나서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주제로 삶 가운데 깨달은 영성 훈련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강준민 목사는 "뿌리 깊은 영성이란, 본질로 돌아가는 영성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지혜, 사랑을 닮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 우리 삶의 변화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겸손한 영성이었고, 고난과 어둠 속에서 성장하고 내면을 가꾸는 영성이었다"며 "말씀을 충만히 받아 순종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뿌리 깊은 영성의 절정은 감사에 있다. 감사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

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영성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바울이 추구한 7대 기독교 영성'이란 주제로 강의한 이동원 목사는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존재"라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거룩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바울은 복음의 영성으로 선교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 살았다"며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졌던 완

주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신성한 통로'라는 주제로 강의한 영성작가 게리 토마스는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며, 우리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게리 토마스는 세미나에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박애

주의 영성',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연주의 영성', 마음을 다한 예배, 목숨을 다하는 기도, 뜻을 다하는 말씀 공부, 힘을 다하는 봉사를 통한 '지성주의 영성'을 소개했다.

또 금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목상의 영성 등을 설명하며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머리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1면 '故 임동선 목사 3주기 추모예배 열려' 이어]

추모 서간 후기를 전한 풀러신학교 임유탉 교수 고 임동선 목사의 선교신학을 '하나님의 선교신학', '바울 선교신학', '디아스포라 선교신학', '부흥 선교신학', '성령 선교신학', '선교사 교회신학' 등 7가지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세계 선교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모 서간 후기를 전한 남종성 목사는 "고 임동선 목사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게 됐다"며 "우리에게 남

겨주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재해석하고, 믿음과 헌신으로 그분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원한다"고 전했다.

예배에 이어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지휘로 추모 음악회가 진행됐다. 음악회는 '연합', '선교', '소망'이란 주제로 LAKMA 챔버 오케스트라, 월드미션대학교 챔버 콰이어,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김미진, 양유진, 바리톤 장상근 등이 연주자로 나서, 고 임동선 목사가 추구하며 삶으로 보였던 복음의 진리를 노래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 지휘로 진행된 고 임동선 목사 3주기 추모 음악회

또 임성진 박사는 고 임동선 목사 추모 3주기를 맞아 출간된 '임동선 목사의 선교신학'이란 책을 소개했

다. 책에는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자 임동선 연구를 비롯해, 25명이 '임동선 목사의 선교신학', '동양선교

교회 나무들과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주제로 고인의 선교 열정과 신학을 정리해 엮었다.

한편 한인 이민 선교의 선구자로 불려온 임 목사는 1970년 47세에 '선교·교육·봉사'라는 3대 가치를 내걸고 동양선교교회를 사택에서 개척해, 1990년 은퇴하기까지 동양선교교회를 LA를 대표하는 한인 이민 교회로 성장시켰다. 1987년에는 전 세계 90여 개 교회와 기관을 지원하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조직했으며, 1989년에는 월드미션대학교를 설립해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T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할렐루야 한인교회 부흥성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라

일정 2019년 9월 27일(금) 저녁 7:30분
 9월 28일(토) 오전 6:00
 9월 28일(토) 오후 7:00
 9월 29일(주일) 1부 오전 8:00
 9월 29일(주일) 2부 오전 11:00

장소 할렐루야 한인교회 (송재호 담임목사)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595-3110

박우원 목사
 APM(Africa Prayer Mission) 국제대표
 ATI Mission 국제대표
 부흥집회 800여회 인도
 메릴랜드한인교회 한우리 침례교회 담임, 한인 목회 37년

할렐루야 한인교회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 of Walnut

예장 국제총회 2019 목사안수예배 및 안수식 개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제임스 구 행정처장 및 9명, 목사 안수받아



예장 국제총회 2019 목사안수예배 및 안수식에서 설교하는 총회장 최홍주 목사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예장 국제총회 2019 목사안수예배 및 안수식



예장 국제총회 2019 목사안수예배 및 안수식 서약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총회장 최홍주 목사)는 지난 21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2019 목사안수예배 및 안수식을 갖고,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제임스 구 행정처장을 비롯해 김승욱, 김영환, 김현철, 박상현, 박이원, 박창희, 성용희, 송두선, 한관호 등 10 명이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최홍주 목사는 “누구도 종이 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깊이되면, 세상에서 누리던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진다”며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드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설

교했다. 권면을 전한 증경총회장 김광신 목사는 “목사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명”이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주야로 공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신 것은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이라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어서 축사한 신승훈 목사 “목회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채우

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보고 먹이는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목사안수예배 및 안수식은 예장 국제총회 증경총회장 안동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강성수 목사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

에드워드 권 강도사 목사 안수식 가져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이하 RPCA) 2019년 정기총회 및 LA 노회 목사 안수식이 지난 23일 나눔과 섬김의 교회(담임 김엘리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 임원 선출을 통해 강성수 목사(빅토벨리 복음장로교회)가 신임 총회장으로, 박정희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선출됐다. 강성수 목사는 “RPCA 총회 총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동역하며, 서로를 돕는 총회가 되길 원한다”며 “특별히 기도하는 총회로 주님께 간구하고 뜻을 구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사 안수식에서는 LA 노회 에드워드 권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안수식은 총회 총무 엘리야 김 목사의 사회로 남부노회부노회장 박문석 목사가 대표 기도했으며 LA 노회 서기 한수지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남가주 여성목사회 직전회장 안선신 목사가 특송했다. 설교는 LA 노회 직전회장 김인철 목사가 “그리스도의 일꾼(디모데후서 2:3-6)”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김인철 목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법과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라”며 “열심히 땀 흘리는 성실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진 권면에서 총회장 강성수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좋은 동역자와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남가주 여성 목사회 회장 주재임 목사는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안에서 은혜의 복을 누리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동욱 기자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2019년 정기총회 및 LA 노회 목사 안수식 기념 촬영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LA 노회 목사 안수식



은혜로 달려온 8주년

창립8주년 기념 및 임직감사예배

새로운 일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 새 일꾼을 세우고 임직감사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하오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교회 담임목사 정병노 외 교우 일동

일시 : 2019년 10월 6일 오전11시
장소 : 새일교회당 760 S. Westmoreland Ave., LA,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임직자

장로 : 이현기, 장재광
 권사 : 박진희, 손영희, 장 그레이스,
 이순영, 차미선, 최현숙



정병노 담임목사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28

“블랙마운틴 은퇴선교사 마을을 기억하면서...”

필자와 선교 동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엘에이 북쪽 벨리 지역에 위치한 웨스트힐교회 회에서는 매년마다 교우들이 블랙마운틴에 사시는 은퇴 선교사님들을 찾아 감사드리고 위로하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필자는 매우 기쁘고 감사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스 캐롤라이나 예슈빌 지역에 블랙마운틴이라는 산간 마을이 있다. 그곳은 벨리 그레함 목사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벨리 그레함 센터가 있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수많은 발렌티어 사역자와 중보기도자들이 세계 각국의 성도들이 보내오는 기도제목을 두고 1년 365일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선교정보 및 동향, 선교 세미나 등 세계 열방을 품고 맡겨진 사역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다.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그 지역이 동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워싱턴, 볼티모어 등지의 몇몇 한인 교회들이 찾아뵙고 있지만 서부의 교회가 꾸준히 찾아뵙기엔 어려운데 웨스트힐교회에서 교우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다 하니 감사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시기에 오셔서 6.25 사변을 겪고 격동하는 한국 역사 속에서 선교사역을 일평생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엔 왔던 그대로 가장 하나 들고 가신 분들이시다. 의사와 간호사로 은퇴하면 여생을 넉넉히 살 수 있는 재정은 지니셨을 법 한데 그분들은 그런 것도 없으셨다. 은퇴까지 선교사에게 지급되는 선교 지원비로만 사셨고 한국 병원에서의 의사로서, 간호사로서의 보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던 나라의 선교사들이 세계 최빈곤국가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오셨던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하고 갚아야 한다. 물론 되갚을 수는 없다. 받은 사랑 우리의 복음 전파를 기다리는 열방의 영혼들에게 갚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유진벨 재단이 한국 선교를 위해 3대에 걸쳐 헌신하며 모금한 재정이 400억 원이 넘었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한 선교사님 뒤에서 보이지 않게 후원하는 귀한 손길들이 수없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선과 한국을 위해 귀한 피와 땀을 흘려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깊이 숙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진심의 인사를 드린다.

70여 분의 은퇴 선교사들을 모셔서 집을 드리고 재단에서 보살펴 드리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은퇴 선교사님들이 7, 8 분 정도 90이 훨씬 넘는 연세로 생존해 계신다. 그러나 그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천국은 가셨으나 그 뜻을 받들어 자녀들 자손들이 그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현재 30여 명 정도 되어 있다.

필자는 유진벨 재단이 한국 선교를 위해 3대에 걸쳐 헌신하며 모금한 재정이 400억 원이 넘었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한 선교사님 뒤에서 보이지 않게 후원하는 귀한 손길들이 수없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선과 한국을 위해 귀한 피와 땀을 흘려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깊이 숙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진심의 인사를 드린다.

필자가 처음 방문했던 때 보았던 마리엘라 선교사님(전주병원 간호사 은퇴), 로이스 선교사님(유진벨 선교사 외손녀), 메리 선교사님(계성고 교사), 메리안네 선교사님(간호사 은퇴) 등 그분들은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다. 소원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에 한결같이 한국이 잘 되는 것, 한국이 선교 선진국이 되는 것, 남북통일이라고 말씀하시곤 '아리랑'을 100세 되신 선교사님 올겐 반주로 우렁차게 불러대시던 그분들이 기억난다.

행복 만들기(4) 미소가 행복입니다!

미소가 행복입니다. 행복하면 미소 짓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미소의 유익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미소에 관한 많은 연구가 미소의 효과나 미소의 유익들을 강조합니다. 미소의 유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소 짓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즉,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미소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소 짓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연구팀은 대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얼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각 사진에는 백인 남성 2명, 백인 여성 2명, 동양인 남성 2명, 동양인 여성 2명 등 총 8명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 중 절반에게는 무표정한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여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담긴 얼굴만을 보고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미소를 지을까요? 초음파를 통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 26주부터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생득적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장해가면서 미소를 잃어갑니다. 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0회 정도 미소를 짓는답니다. 반면 아기들은 하루에 400회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미소를 잃은 것입니다.

미소의 유익들이 많습니다. 첫째, 미소는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미소를 지을 때마다 뇌에서는 '잔치를 벌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는 긍정적 정서를 갖게 합니다. 미소 짓는 그 자체만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며 음식을 나누고 사람을 만나면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잔치를 통해서 행복감이 상승하고 더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필자는 이것을 '미소 잔치'라 부릅니다. 행복하려면 '미소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자주 웃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훨씬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소는 우리 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실험 결과, 무표정한 사진을 본 학생들이 웃는 얼굴을 본 학생들보다 성별과 인종 때문에 형성되는 선입견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의 사진을 본 학생들은 성별과 인종에 따른 선입견이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미소를 짓는 얼굴에서는 불편한 선입견이 없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인종과 성별에 대한 선입견은 미소로 상당한 수준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소는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미소는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버딘 대학교 연구팀이 2011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소를 짓는 사람은 얼굴과 전 신체를 활기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소는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는 치유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받는 환자가 미소 지으면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미소가 수명을 길게 한다'는 보고서가 많습니다. 심리학 학회지인 "Psychology today"에 1952년 미국 프로야구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선수들 150명 사진을 2009년에 분석하고 그들의 수명과 미소의 상관성을 발표하였습니다. 150명의 선수들 가운데 전혀 웃지 않았던 선수들 평균 수명이 72세였습니다. 억지로 미소 짓던 선수들 평균 수명은 75세였습니다. 반면에 미소를 머금은 선수들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로 미소는 사회성을 높여 줍니다. 미소를 지을 때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소는 상대방을 외향적이고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판단토록 하는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동기와 정서(Motivation and Emotion)'라는 저널에 실린 조지아타운 대학교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소의 힘은 성별과 인종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선입견도 약화된다.'고 합니다.

넷째로 미소가 행복으로 이끕니다. 미소의 중요성을 밝혀주는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을 찍은 여대생들의 30년 후의 삶을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미소 지었던 여학생들의 삶이 미소 짓지 않았던 여대생들의 삶에 비해 훨씬 행복하고 안정된 삶이었다고 합니다. 또 미소 짓는 학생들이 미소를 짓지 않았던 학생들에 비해 이혼율도 훨씬 더 낮았습니다.

미소는 대단한 효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미소 지어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미소가 보약입니다. 미소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줍니다. 미소는 인간을 하루하루 더더욱 행복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행복하려면 환한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환한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증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RSVP for Open House
November 7th @ 7pm



“봉사는 삶의 기쁨, 낮아짐은 복음의 핵심”

[현장르포]기쁜우리교회 친교부 황치규 안수집사, 황향자 권사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토요일 새벽, 아침을 맞는 손길이 바쁘다.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친교부를 담당하는 황치규 안수집사와 황향자 권사는 새벽 기도회를 마친 성도들에게 대접할 따뜻한 밥과 국 250명분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고 했다. 주일에는 체육관을 친교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500명 분의 음식 준비 외에도 의자와 테이블 설치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야 한다.

새벽기도를 마친 성도들에게 배식을 마치고, 혹여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한 후에야 배식대 한편에서 국밥 한 술을 뜨는 황집사를 만날 수 있었다.

교회와 신앙은 삶의 전부

유교집안에서 자란 황 집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86년 미국에 오면서부터다. '내 손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섬기겠다'는 각오로 봉사한 지가 30년도 더 넘었다.

한 주를 여유롭게 보내고 남는 시간에 봉사한 것이 아니었다. 여느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황 집사의 이민의 삶도 고됐다. 건물 관리, 페인트 칠, 청소 등 누구 못지않을 만큼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여유롭게 쉬는 누릴만한데 평일에도 교회에 가는 주말을 기다릴 만큼 교회에 머물며 봉사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교회 직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열심을 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기쁨이 더 컸고, 미국에서 교회와 신앙은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민자들에게 삶의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회 생활과 일반 하느라 자녀 교육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서 사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그에게서 30년도 넘게 봉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들을 수 있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믿음'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 할 때는 경험에서 묻어나는 확신과 자신감이 넘쳤다.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봉사를 하면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봉사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 걱정 말고 기쁜 마음으로 '땀비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봉사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 않았냐고 묻자, 오히려 봉사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줬다고 했다. 한 주의 고된 삶을 마친 성도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힘이 난다고 했다. 고국을 떠나 외로운 이민의 삶에서 교회가 울타리와 가족이 되었듯, 그 역시 누군가에게 편안한 안식처와 가족이 되고자 했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교회에 오면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모두가 내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들이지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예요. 힘들고 보이지 않는 일일수록, 내 작은 수고로 성도들이 기뻐하면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지요.”

교회 재정, 선교 구제 봉사에 사용돼야 교회 직분자, 섬김의 리더십 필요

황 집사를 통해 미주 한인교회에 필요한 고언(苦言)도 들을 수 있었다.

30년 넘게 한인사회에 있으면서 한인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단다. 결국 돈이 문제라고 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문제라고 했다. 선교와 구제, 봉사로 사용되어야 할 교인들의 헌금이 교회에 묶이면서 교회 재산만 늘린다 이런 다름이 일어난다는 정확한 분석이었다.

또 기득권이 문제라고 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이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인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담임 목사를 도와 부흥을 견인해야 할 장로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례를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황 집사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며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엘에이 지역 한인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힘을 하나로 뭉쳐,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이웃 구제에 힘을 쏟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평신도의 눈으로 본 한인교회를 향한 쓴소리가 아닌 간절한 바람이었다.

교회 봉사에 은퇴는 없다

74세 동갑내기인 황치규 안수집사와 황향자 권사 부부는 지난해 은퇴했다. 그러나 교회 봉사에 은퇴가 없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주위에서는 ‘그만하면 됐다’, ‘다치면 낫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놀면 뭐합니까? 건강이 허락하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지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황치규 집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은퇴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며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리기는 어려웠을 텐데, 인생의 후반부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뉴저지 주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도 의료보험 의무화와 미가입 벌금 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 1996년부터 24년간 미 전 지역의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 사망 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 80	\$ 40
2인	\$325	\$260	\$160	\$ 80
3인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임신/출산 건강검진(\$500/1년)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 수술	입원, 수술

*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입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wned by Logos Missions, Inc.
899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삶의 지혜

전도서 1:1-11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생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 왔습니다.

열왕기상 3:2에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는 일천 마리의 제물을 하루에 번제(燔祭)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윗의 열 여섯 아들 중에서 보잘 것 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황감(惶感)하여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9)”했습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壽)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富)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왕상3:11-14)”고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왕상3:28).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왕상4:29-30)” 했으며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왕상4:34)”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국력이 신장되고 위세가 확장 되었으며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분별없이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우매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웃나라에서 여자들을 솔로몬의 첩으로 많이 보내왔고 좋지 않은 관계들을 맺게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세상조건에 편승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게 되고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타국에서 온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성전 안에 갖다 놓고 절하게 하는 죄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에 편중하고 세상조건에 편승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인생의 무상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이 회개하도록 하셨고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토설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쓴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전반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고백이며 신앙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2절은 세상 무엇인가에 빠져들 땐 최고로 여겼던 것들이 부질없고 잘못 살았던 것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깨달아 회개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이 세상 조건을 위하여 애썼다는 것이며, 본문 5절에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하는 말은 자신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기준삼아 사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삼아 사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준삼아 사는 인생은 속임을 당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깨닫는 지혜가 빠를수록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사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후로 살게 될 사람들도 우리가 옛 사람들을 쉽게 잊듯이, 우리가 살다가 흠으로 돌아가면 후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18부터 보면 솔로몬은 세상조건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한탄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지혜로 수고한 모든 결과물을 관리하게 될 것이기에 그것 또한 헛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15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산다는 것은 곧 허욕이며, 허욕은 스스로의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뿐입니다.

전도서 2:21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했지만,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가지고 살게 되고 그 사람의 수고한 성과는 또한 다른 사람이 쟁겨 살게 되니 이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모든 수고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게도 유익한 것이 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2:23)”했습니다.

마태복음 6:34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하셨습니다.

전도서 2:24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는 고백은 솔로몬이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기에 얻어진 경험입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세를 의미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영원의 소망을 가꾼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도서 3:11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흠모하여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파생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은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확실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19-20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12-14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 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실패는

자기중심으로 처신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관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령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중심의 신앙 인생은 육신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척하며, 말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듯 말하지만 작은 어려움에도 표정이 바뀌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좋지 않게 변하는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사는 인생이라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세상에 보내셨고 오늘까지 지키고 가꾸시고 보살피고 오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윗 또한 시편 39:4-7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추석맞이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50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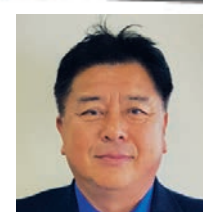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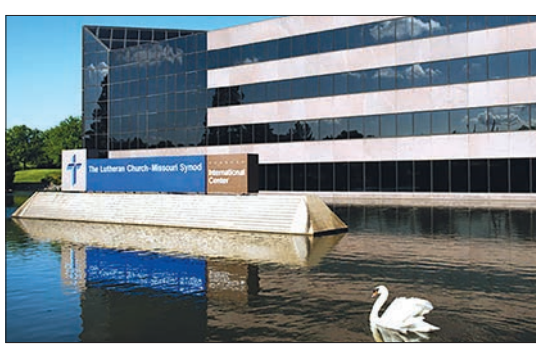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북미 루터교회 한인총회 교단 가입 설명회 열린다

오는 11월 4일(월) 오전 10시, 알바인 콘콜디아 대학교



루터란 교회 미조리 시노드 국제 센터 전경

오전 10시, 알바인에 위치한 콘콜디아 대학교(Concordia UNIVERSITY Boriand-Manske Center#221)에서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단 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회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는 점심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10월 23일(수)까지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문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에게 하면 된다.

2019루터 교단(LCMS) 편목 과정 안내
일시: 2019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Concordia UNIVERSITY (Boriand-Manske Center#221)
신청 마감: 2019년 10월 23일
참가신청: 김영규 목사 213-663-3301
이인규 기자

북미 루터교회 한인총회(총회장 숙된 북미 루터교회 한인총회는 미 국과 캐나다에서 60여 명의 한인 목

최이우 목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월서연합감리교회 가을부흥집회에서 설교하는 최이우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최이우 목사 초청 가을부흥집회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본국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를 강사로 가을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부흥성회 첫날 “채널을 바꾸라(요한복음 5장 2-9절)는 제목으로 설교한 최이우 목사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당부했다.

최 목사는 “꿈과 소망 없이 사는 인생만큼 재미없는 인생이 없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에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모든 조건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와 꿈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교집안에서 자라 16살 때 출가를 결심했던 때를 간증하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도 증거했다.

최 목사는 “승려가 되겠다고 결심한 후 친구의 인도로 교회 부흥성회를 참석했다가 옆사람의 기도를 따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을 모시고 살겠습니다’를 10번 정도 따라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며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묵상과 믿음까지 놓치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라며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자”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www.sunhanchurch.com

1. 지원 자격

- 1) ECO(복음연합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2편): 영상 파일 혹은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 (이중 한 분은 이전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2019년 9월 30일까지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한목자교회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 개최

설동욱 목사 강사로 오는 10월 3일 (목)부터 6일(주일)까지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흥 목사) 추계부흥성회가 오는 10월 3일 (목)부터 6일(주

일)까지 서울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를 강사로 “하나님의 본심”(예레미야애가 3:33)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은혜한인교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기 대할 때”라며 “이번 집회는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초대 의 말을 전했다.

일시: 10월 3일 (목)부터 6일(주일)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문의: 김대성 행정목사 714-336-4478

정은진 기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 성가단 2019 정기 연주회

예루살렘 성가단(단장 김 엘리야 목사, 지휘 조한우, 피아노 송지영)은 지난 22일,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2019 정기연주회를 갖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노래했다.

이날 연주회는 단장 김엘리야 목사의 인사와 미주한인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민승기 목사가 개회 기도에 이어 예루살렘 성가단의 연주로 진행됐다.

예루살렘 성가단은 이날 △감사의 찬송 외치어라 △강하고 담대하

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등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

또한 이날 연주회는 LA 여성 선교합창단(지휘 최왕성)과 숙명여자 대학교 남가주 동문합창단(지휘 박은미, 반주 윤은정)이 특별출연으로 자리를 빛냈다.

단장 김엘리야 목사는 “찬양은 피조물 된 인간의 특권이자 의무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하늘의 새와 들의 풀로도 찬양하게 하시기에, 찬양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의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지난 시간 열심을 다해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으로 연주회를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단 모든 단원들께 박수를 보내며 이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이 받으실 것”이라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인규 기자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라!”

GIFT 상담치유 연구원 “제11차 새사람 전인치유 힐링캠프” 성료



GIFT 상담치유 연구원 “제11차 새사람 전인치유 힐링캠프”

GIFT 상담치유 연구원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지난 14일과 21일 양일간 주최한 “제11차 새사람 전인치유 힐링캠프”가 부에나팍에 위치한 가스 패밀리 처치(God's Family Church)에서 진행됐다.

40여 명이 참가한 캠프는 조셉 전 의학박사와 GIFT전문 상담소장인 리디아 전 임상심리학 박사가 나서 뇌의 기능과 실제 우리 몸에 대한 의학적 강의와 마음과 심리를 성경적,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하나님의 형상된 바른 정체성을 발견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GIFT 상담치유 연구원은 앞으로 마음 치유 교실과 관계 기술 교실을 개설

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상처 받은 치유자들을 양성하는 KAMT-왕의 군대 위생병 훈련을 위해 오는 10월 19일(토) 오전 10시 GIFT 사무실 (156 Soco Dr. Fullerton)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11월 16일(토)에는 “MBTI 대화기술” 일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GIFT 상담치유 연구원은 “오랜 세월 많은 연구와 사용으로 국제적으로 신뢰도와 정확도가 확인된 정식 MBTI 성격유형 검사로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기술 그리고 그로 인한 원만한 소통 기술을 배우게 된다”고 소개했다.

정은진 기자

살롬장애인선교회 지구촌 장애인들에게 복음과 사랑 전해



살롬장애인선교회 제42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발송식

1999년 설립돼, 지난 20년 동안 남가주를 비롯해 지구촌 장애인 선교와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지난 25일, ‘제42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발송식’을 갖고 우간다(아프리카), 키르키즈스탄(중앙아시아), 파라과이(남미)에 휠체어 619여 대 포함해 시가 20만 달러 상당의 의료보조기구 등 총 2,287점을 3개의 컨테이너로 선적해 보내는 발송식을 가졌다.

이날 발송식 예배는 살롬장애인선교회 이사 임창수 장로의 기도예에 이어 박모세 목사가 사역보고를 전했으며, 이사 김준식 목사(남가주 살롬교회)가 설교하고 박영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대표 박모세 목사는 “하나님의 놀라우

신 은혜와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한인 사회 내 교회와 단체, 성도들의 헌신으로 오늘도 장애로 힘들어하는 지구촌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의료 보조기구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기구와 함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의 2천여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구는 오는 10월 4일 롱비치항을 통해 출항하게 된다.

한편 살롬장애인선교회 지금까지 42차에 걸쳐 휠체어 1만 2천943대, 기타 의료보조기구 5만 2천882점 등 모두 15개국에 의료기기 6만 5천825점을 보냈다고 보고했다.

정은진 기자

교회 소식

<p>LA 지역</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김성식 담임목사</p> <p>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주일예배 오전 11:00 고육부 예배 오후 7: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후 9:00</p> <p>씨니킴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새시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p> <p>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p> <p>*한양사역 구역에 15분 전</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교차로) T. (213)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p> <p>최순환 담임목사</p> <p>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213) 905-2228 / newchurchdtdia.com</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향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목회역 위치)</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1:00</p> <p>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p> <p>정세훈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목) 오후 7: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정병노 담임목사</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620-7240 Email: lasehil202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정세훈 담임목사</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양기성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p> <p>정인호 담임목사</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1:00 유초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p> <p>EM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곽건성 담임목사</p> <p>예은장로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p> <p>박은종 담임목사</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p> <p>김종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분당) (소셜메시)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 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김신 담임목사</p> <p>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p> <p>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심자가 사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p> <p>김은목 담임목사</p> <p>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	---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 381-9490



곽부한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아인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로 세운 빛과 열매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우영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저녁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일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연합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주간 7:3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탁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8:00
 1814 Rinalto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363-5887

MP 센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8월 19일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9월 1일 예배 오전 7:45
 588 Aliso Ave. Monterey Park, CA 9175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8:00
 Tel: (626) 937-9900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장신대 교수들 “목사고시 불합격 재고” 호소문 논란



장로회신학대학교

23일 개최하는 예정 통합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51명이 서명했다는 호소문이 나왔다. 최근 '동성에 옹호' 혐의로 올해 목사고사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된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것이다.

교수들은 호소문에서 불합격 된 두 명의 학생 중 한 명을 언급하며 "최종 변호를 통해 자신이 '동성에 옹호자·지지자'가 아니며 교단 총회의 동성에 결의를 따르겠다고 분명히 소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동성에 지지자라는 낙인과 함께 불합격되었다는 현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총대들을 향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복음과 개혁 교회의 전통에 충실한 목사후보생으로 성숙해 가도록 목회자의 심정으로 애타게 기도하고 정성껏 가르치겠다"며 이번 불합격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동성에 대한 시각을 두고 장신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이 같은 호소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해 교단 안팎에서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무지개 퍼포먼스' 등 장신대가 잇따라 '동성에 옹호'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결국 교수들이 문제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단 한 관계자는 "장신대 교수들 중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에 서명한 교수들의 수는 불과 5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수들이 불합격 된 학생들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기 전 먼저 동성에 대한 그들과 학교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불합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학생들은 "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했을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동안 두 학생은 동성에 옹호 성격이 짙은 글을 SNS에 남겼다"며 "그렇다면 정당한 동성애 비판조차 차별과 혐오라는 생각에서 '그런 차별까지 반대한다'는 교묘한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두 학생 중 한 명은 과거 SNS에 "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죄다 아니 다를 단정지어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죄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거라면 그걸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성애는 죄이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게 아직까 지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등의 글을 남겼다.

김진영 기자

“공산화에 대항”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 ‘삭발’



이 목사가 삭발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애국가와 구호를 제창했다. ©대구경북국기도운동본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 교회들 일어나야”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가 앞서 예고한 대로 25일 오전 10시 40분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에 있는 이 교회 1층 현관 계단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대구 지역 교계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다수 함께 했다.

김상현 목사(대구경북국기도운동본부 사무총장)가 사회를 맡은 삭발식에선 박태문 목사의 기도 후 이상민 목사가 본격 삭발에 앞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목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먼저 회개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대한민국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삭발을 하고자 한다”며 “이 땅의 교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

어 오는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왔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가장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뒷짐 지고 있음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머리를 삭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며 “사회주의의 국가는 적그리스도요, 사탄의 나라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나라를 사회주의의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머리를 하나님과 대한민국 앞에 바친다”고 외쳤다.

이후 이 목사가 삭발했고, 그러는 동안 참석자들은 애국가와 구호를 제창했다. 구호는 “조국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한국교회에 일어나라” “성도가 일어나라” “목회자여 일어나라”였다.

한편, 이 목사가 이어 대구 지역 목회자들이 연이어 삭발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목사고시 탈락 신학생 2인 관련 질의



총회 첫째날 저녁 회무 모습. ©이대웅 기자

최성욱 목사 “신학생의 아버지 피눈물 흘리고 있다”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첫째날인 23일 저녁 회무에서는 ‘동성애 옹호’ 혐의로 목사고시 면접에서 탈락한 신학생 2인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서울강남노회 최성욱 목사는 “목사고시 합격자들이 거치는 절차는 정해져 있는데, 교단 특별위원회나 상설위원회도 아닌 임원회 자문기구에 불과한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특별위원회가 다시 조직돼 고시위원회의 결정을 재론했다”며 “고시위원회 결정은 고시위원회만이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당사자 아이들은 동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며, 동성애 지지자나 옹호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저희 노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근거 자료도 관련 법령을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전 총회장 림형석 목사는 “목사고시와 관련해 고시위원회가 모였는데, 2인이 문제가 됐다. 그 중 1인은 소위 ‘무지개 퍼포먼스’를 했던 학생”이라며 “이는 외국의 경우 분명히 동성애를 표현하는 내용이고, 동성애대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친동성애 세미나 사회도 맡는 등 그런 문제에 많이 관여된 학생으로 안다”고 답했다.

림 목사는 “우리 총회는 동성애 옹호자·지지자들을 신학교 교수나 총회 직원, 목사로 안수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며 “그래서 임원회가 고시위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총회 규칙부 등이 함께 의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많은 의논을 했지만, 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안건이 다시 고시위원회로 돌아갔고, 고시위원회의 장시간 논의 끝에 두 학생을 면접에서 낙오시키고, 1년간 별 문제가 없으면 다음 해에 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두 학생의 주장은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성애 인권에 이야기했다면 동성애 옹호자이나, 교단 결의 취지대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후 그는 “불합격 처리된 학생 중 한 명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긍휼의 마음이 넓어 군무를 준비하는데도 장발을 하고 있다. 소아암 환자들의 가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며 “정말 착한 아이”라고도 했다.

최성욱 목사는 “(해당 학생은) 장신대에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들이 신학을 하다 괴로워 자살 충동도 느낄 정도여서 ‘동성애는 죄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이라며 “그리고 행동한 것이 퍼포먼스와 함께 무지개 깃발을 든 것이다. ‘무지개 퍼포먼스’도 예배 후 격려를 위해 밖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비가 오는 바람에 안에서 찍은 것 뿐”이라고도 했다.

최 목사는 “그러나 동성애는 절대 안된다”는 보수적 학생들이 본인 허락도 없이 SNS에 해당 사진을 게시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것”이라며 “(해당 신학생의) 담임목사가 그를 3-4년 봤는데 ‘동성애 옹호자 아니다’고 답했다. 지금 그 신학생의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전 서기 김의식 목사는 답변에서 “서울강남노회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고 논의했다”며 “이에 총회 전 마지막 임원회에서도 이를 논의했고, 규칙부 유권해석을 채택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104회 기 고시위원회에서 재론할 수 있도록 문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북노회 김학수 목사가 “동성애대책위원으로 지난 2년간 활동했다. 저희도 심사숙고했고, 고시위원회 결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며 “제반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동성애대책위원장에게 보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셋째날 고시위원회 보고시 재론하기로 했다.

이대웅 기자

[합동] 전 법인이사들 사과로 총신 사태 ‘일단락’



총신대 전 법인이사들이 총대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재서 총장 “학교 안정되고 있다”

수년 간 진통을 겪었던 ‘총신대 사태’가 임시이사 파송과 이재서 신임 총장의 선출 등으로 이어지며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다 전 법인이사들이 총대들 앞에서 사과하며 일단락 됐다.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24일 오후 회무에서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위원회’(이하 총신위)는 △총신대 전 법인이사 및 감사 전원(은퇴목사 포함)에게 사과문을 받고 △이들을 총회 석상에서 사과시키기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총대들이 허락했고, 전 법인이사 및 감사 9명이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사과문도 모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자 총신위는 다시 총대들에게 “사과까지 받았으니 화합 차원에서 이들에게 내려진 ‘천서 제한’을 풀자”고 요청했고, 총대들은 임원회에 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겼다.

이후 총신대 이재서 총장이 총대들 앞에 나와 인사했다. 그는 “여러분 덕분에 총신대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 동안 참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끝까지 총신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달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총대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진영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714) 296-6783 www.sb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 2222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C,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베델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A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 저녁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생모임 : 매월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님과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애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중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애)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애)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애)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8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김삼환 목사가 인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통합] 김삼환 목사 "총회 나가라? 갈 데가 없더라"

명성교회 수습을 위한 전권위원회 구성안이 전격 통과된 것은 서울동남노회 수습 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 보고에서였다.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둘째날인 24일 오후 회무가 마무리될 무렵, 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수습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인사를 제안했고, 김 목사의 사실상 사고 이후 토론과 표결이 진행됐다.

채영남 목사는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한 것이 있다. '법은 지키고 교회는 살린다'는 것이다. 법은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 아들(김하나 목사)도 앞길에 장창한 분인데 큰 손실이다. 진정성 있게 말씀드렸고, 수습노회가 소집됐다"고 전했다.

채 목사는 "이후 재심이 진행됐다. 그런데 교회 측은 재재심을 이야기하고 비대위 측은 또 방어를 위한 이야기를 한다. 이걸 그냥 놔두면 총회가 얼마나 공전하겠는가"라며 "지난 주일(김삼환) 원로목사님에게 물어보니 조그마한 사고 성명 내는 것도 흔 자라보면 문제가 없지만 주변의 반대가 많아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조그마한 사고 성명"은 총회 직전인 22일 발표된 김삼환 원로목사의 '사과문'을 말한다.

그는 "(명성교회 측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사랑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다. 그 심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각자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다.

또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님은 그 동안 우리 총회의 자랑거리와 큰 힘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못된 교회, 못된 목사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청빙과정의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일리가 있고 동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계속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채영남 목사는 "법으로 싸우는데도 계속 이겼다 졌다를 반복한다. 지금 진다고 그대로 포기하겠다. 얼마든지 다시 준비한다"며 "이렇게 싸우는 동안, 흑암의 권세가 '어부지리'를 언더라. 이래선 안 된다. 이번 총회에서 꼭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총회 주제처럼 명성교회부터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김삼환 원로목사의 인사를 총대들에게 요청했다.

김삼환 목사는 "귀한 자리를 통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그 동안 저희 교회로 인해 많은 기도와 어려움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어렸을 때 목욕을 하다, 아버지가 '왜 일을 안 하고 목욕하느냐'서 저를 많이 때렸다. 맞다 보니 코와 입에 피가 났다"며 "그걸 본 아버지는 한 순간에 노를 멈추고 피를 닦아주셨다. 맞은 것보다, 그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슴에 안고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총회가 저에 대해, 저희 교회에 대해 하실 일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한다"며 "한 방울만 때려도 엄청난 상처가 생기는데, 많은 이단까지 달려들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많이 맞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희는 101회, 102회 총회와 지금까지 모든 총회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한 일인데, 일부의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를 빌겠다"고도 했다.

김삼환 목사는 "예장 합동 측에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 사랑의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살려 주셨다"며 "저는 이번 총회에서 저희 교회가 그동안 여러가지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고, 총대님들을 모두 형님같이, 부모님같이, 동생들같이 앞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어떤 분들은 '명성교회는 총회를 나가라'고 했다더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갈 데가 없더라"며 "그러니 잘 풀어 주시고, 집에 돌아와서 총회와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는 일에 공헌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총대들은 "명성교회 수습안은 재심 판결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온전히 수용하여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뒤에 전권위 수습 방안을 청원해야 한다", "재심 판결을 불복하려면 일반 사회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 "서울동남노회의 가져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비대위 측 선거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수습전권위 구성이 잘못됐다" 등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김삼환 목사님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의의 분장을 해서 남은 결과가 무엇인가. 2년간 17만명이 줄어들었다. 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돌 맞는 것이 아니다" 등 찬성 의견도 나왔다.

이후 한 총대가 해당 사건에 대한 비공개 제안을 했고, 과반수를 넘기면서 표결은 언론사 퇴장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후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찬반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 인사 7인을 세워 반대의견도 담아내겠다"며 "저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정한 징계까지 포함해 수습안을 내 모든 총대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이상 명성교회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사회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며 "이 문제가 사회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고 세운 위원들로 하여금 양자를 만나 총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통합] 명성교회 수습전권위, 채영남 목사 등 7인 발표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둘째날 오후 회무에서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에서 명성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제출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

총회는 언론들을 모두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한 표결에서 재석 총대 1,142명 중 1,011명의 압도적 지지로 해당 조정을 통과시켰다.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둘째날인 24일 오후 명성교회 수습안이 전격 통과된 후, 수습안으로 제시된 7인

특별위원회' 명단이 발표됐다. 이 7인은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직접 선정했다. 김태영 목사는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원 1명씩, 그리고 권역별로 중립적 인사를 1명씩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7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동노회 채영남 목사, 경안노회 권헌서 장로(헌법위원), 서울서북노회 김성철 목사(규칙부원), 강원동노회 김홍전 목사, 평북노회 이순창 목사, 충북노회 최현성 목사, 광주노회 이현범 장로.

이대웅 기자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

임원선거 진행... “본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자”



예장 합동 제104회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김종준 목사 ©김진영 기자



신임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왼쪽 네 번째) 등 새 임원들이 단성 도열해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장에 현 부총회장인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가 무난히 추대됐다. 목사부총회장에도 단독 입후보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별도의 선거 없이 추대됐다.

24일 치러진 임원선거에선 이 밖에도 △서기 정창수 목사 △회록서기 박재신 목사 △부회록서기 정계규 목사 △회계 이영구 장로가 모두 단독으로 입후보해 그대로 당선됐다.

경선한 △장로부총회장엔 윤선울 장로가 임명식 장로를 △부서기엔 김한성 목사가 이종철 목사를 △부회계엔 박석만 장로가 임용한 장로를 각각 누르고 당선됐다.

김종준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번 회기 주제는 ‘회복’이다. 이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발전해 왔다”며 “개혁은 과격한 저항운동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교단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총신대와 관련해 “총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런 곳이 지금 임이사 체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총신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훌륭한 차세대 목회자를 양성하는 명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행정 전문화를 위한 총무 이원화(내·외)와 영성 회복, 다음세대 양성 등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 총회장은 “이번 제104회 총회는 이 같은 회복을 위해 구조를 바꾸는 회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자교단으로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총회가 되도록 함께 전진하자”고 전했다.

한편, 선거 전자투표 과정에서 ‘동명이인’으로 인한 착오가 생겨 예정보다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합동측은 지난 제102회 총회 때부터 전자투표를 선거에 도입했다.

김진영 기자

[통합] “갈등과 아픔 종결 교회 혁신하는 총회로”

총회장 이취임식 개최, 총회장 김태영 목사 취임사



직전 총회장 임형석 목사가 신임 총회장 김태영 목사에게 스톨을 입힌 후 포옹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첫날인 23일 저녁 회무는 총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으로 시작했다. 먼저 임기를 마친 총회장 임형석 목사가 이임사를 전했다. 그는 “남북통일을 앞두고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위기의식을 느낀 103회 총회는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며 “거룩한 교회의 회복, 약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 지원, 우리나라와 교회의 당면 과제인 저출산 문제, 각 분야의 갈등, 흔들리는 가정 등의 회복, 줄어드는 다음 세대 함께 힘써왔다”고 전했다.

김 총회장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 시대의 여러고성과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듯, 오늘 우리 앞의 여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성을 우리에게 점령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 물러나는 임원들이 인사했고, 임형석 목사가 취임하는 총회장 김태영 목사에게 가운을 입혔으며, 성경과 의사봉을 전달했다. 목걸이와 인장 반지도 끼워줬다.

선서 후 취임사를 전한 신임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104회 총회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이다. 썩은 물에서

는 하루종일 낚시한들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을 수 없듯, 교회를 새롭게 할 생명의 말씀으로 혁신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일에 힘과 기도를 모아달라”며 “깨끗해진 물에 물고기가 돌아오듯, 교회는 다시 민족의 희망과 등대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총회는 교단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번 총회 결의 내용과 함께 교단 발전 혁신 방안을 담아 미래 발전 백서를 발간하려 한다. 이를 위해 공청회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 1월에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 생중계로 전국 교회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9월까지 총회 본부 기구 통폐합을 완성하고, 5개처 총무를 새로 선임하는 본부 직제 개편을 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은 6.25 전쟁 만 70년이 되는 해인 만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들끓어 일어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회가 갈등과 아픔을 종결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교회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합동] 로마가톨릭 이교 지정 여부 두고 논쟁 가열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 둘째날(24일) 회무 중 신학부 보고

성서한국 등엔 우려 표명... “적절한 지도 받아야”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 둘째날인 24일 저녁 회무는 내내 신학적 토론으로 뜨거웠다.

특히 로마가톨릭 이교 지정 여부에 대해 신학부는 “일반적으로 ‘이교’라 함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을 말한다. ‘이단’과 ‘이교’는 다르다”며 “총신 교수들의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로마가톨릭은 우리 교단의 개혁신학적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신학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로마가톨릭을 이단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수긍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학부는 “그러나 로마가톨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세를 준다”며 “(이 문제를 연구한) 대다수

의 총신 교수들은 로마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 교단과 동일한 신학적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세계 각처의 장로교단과 개혁교회 교단들 가운데 (로마)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한 곳은 아직까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하여 볼 때 로마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대체로 신학부 보고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로마가톨릭의 구원론이 ‘오직 믿음·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개신교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수교가 아닌 마리아교”라는 주장도 나왔다.

논쟁이 다소 격화하자 신학부는 결국 이 보고를 자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총대들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밖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와 로마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의 신학 사상과 맞지 않으므로 반대하고 배격”하기로 했다.

또 세계복음연맹(WEA)에 대해 신학부는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 다섯 명의 연구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교수가 WEA와의 교류 단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WEA에 신학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결과,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해당 보고는 그대로 통과됐다. 총대들이 ‘고립주의’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박성규 목사(부산 부전교회)는 신학부 보고를 근거로 “성경의 무오성,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등 근본 교리에서 WEA에 문제가 없다”며 “WCC나 로마가톨릭과의 동맹도 교리가 아닌 사역적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서한국·좋은교사운동·복음과상황·기독교연구원·헤미야·정어람ARMC·교회개혁실천연대의 ‘설립 목적과 성경에 대한 연구의 건’에 대해 신학부는 대부분의 단체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담임목사 및 당회의 적절한 지도”를 주문했고, 총대들은 이 같은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김진영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언녕 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LEE)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총회원 기독교회(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석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김학성: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aeu.edu</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p> <p>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p> <p>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p> <p>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Faith Christ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p> <p>3242 W. 8th Street #200., LA, CA 90005 Tel: (818)913-3115</p>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오리엔테이션: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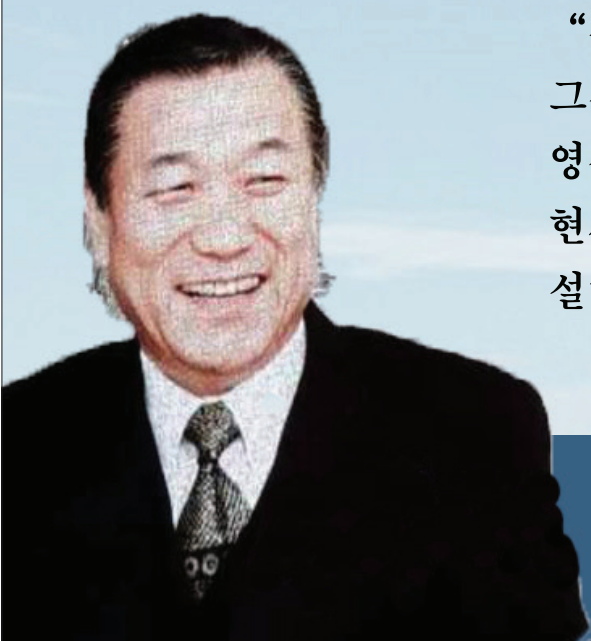
상담문의전화:213-272-6031

축 새생명교회및 영성원 설립예배

일시: 2019년 9월 29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미주크리스천대학교 2층 가와 램파트 사거리
276 S.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703-3236



“감사합니다. 저는 박철수 목사입니다
그간 LA 지역 영성훈련에 참여 하셨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영성사역과 후속사역 힐링-멘토링으로 심리에서 심령으로 나아가
현세천국을 함께 누리고자 미주지역에 교회및 영성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동참하시길 바랍니다.고맙습니다”

미용선교무료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2시-4시

거기서 은혜를 만나다

그날따라 빗줄기가 거세게 휘날렸고 나무 꼭대기에선 비둘기 한 마리가 구슬피 울고 있었다. 유리 조각으로 내 팔의 부드러운 속살이 찢겨나 가던 날 내 가슴을 육중하게 누르던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이 어둠과 가슴시린 고통 그리고 슬픔을 지워 버릴 수 있을까나는 밤이 깊도록 상처를 붙들고 잠을 청하지 못하고 문고 또 물었다. 그렇다 나는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려 했다. 부서지고 조각나 버린 것 같은 내 인생에 문제들에 대하여 궁극적이고 대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평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 했다.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만들 듯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순간이 바로 고통의 순간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위에 자신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에 도화지를 채우기 시작하신다. 그로인해 마음의 무질서는 서서히 변하여 선을 갖추고 빈 공간을 매우며 아름다운 채색에 옷을 입기 시작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그리스도에게 손을 뻗어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내 상처를 발견하기 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그 손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만든다. 그 순간에는 그 상처가 누구의 탓이며 혹은 누구의 실수인가에 대한 관심 보다 지금의 순간 참된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되었다는 기억이 더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한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옆구리 좌우편에 창 찔림과 두 손과 두발에 못 박하신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외면하시지 않으신다. 그럼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닐까?

그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혹자는 "교회에 고난당하고 부서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 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회복이 없어진지 오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산산 조각이 난다해도 그리스도는 당신을 붙들어 주시게 위해 오늘도 당신에 숨소리마저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만신창이가 된 영혼이라도 두려워 마라, 숨지도 말아라.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찾으신다. 그분을 만나면 상한 마음이 싸매어 지고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는 인생과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영적인 전쟁의 전방에서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의 메시지와 간증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은혜로운 새벽설교를 들으면서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금요일부터 있을 집회에는 모두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권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빛이고 복입니다. 선교사가 나가는 곳은 어두움이 변하여 사랑의 빛, 소망의 빛, 치유와 영광의 빛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은 높았지만, 제사장 민족으로서 사명의 실천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선교적 열정을 가진 교회가 받을 은총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첫째 번 은총은 사람의 귀중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본 흑암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는 모습이 이사야에 소개됩니다(사 60:3-4).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며,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합니다. 열왕이 와서 교회를 섬기며 그들을 재물을 가지고 시온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사 60:10-11, 계 21:24-26). 선교하는 교회나 나라는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귀한 이름을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사야 60장에서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오히려 부요하여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일이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투자한 것은 오히려 더욱 풍성한 것이 되어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동편 아라비아 광야의 계달과 느바웃에서 양과 염소가 시온으로 오며, 서쪽 다시스의 배에서 은금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더구나 남쪽 미디안과 에바의 무역하는 물품이 하나님의 도성에 오며, 북쪽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소나무가 거룩한 성에 당도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고 평화롭게 하십니다. 열방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백성들과 함께 새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선물 하십니다.

셋째로 선교하는 개인과 나라는 선교를 받는 민족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달받은 나라는 복음을 전파해 준 선교국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과 종교는 매우 유착되어 있습니다. 선교 130년과 군사동맹 70년의 결합은 조국을 찢터미로부터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일으켜 올렸습니다. 복음을 나눈 영국, 스코틀랜드와 미국은 공히 문화와 역사와 함께 최고의 번영과 동일한 정신세계를 상당부분 공유한 나라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가까운 나라는 최고의 우방국이며 상부상조하는 형제의 나라가 됩니다. 선교는 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현재, 우리교회에서 선교지 교회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이 일을 위하여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은용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 출국합니다.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습니 다. 선교사님께서도 열심히 본인의 사역과 교회건축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고, 선교사님과 만남 이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처음 제 마음은 '부담'이었습니다. 케냐가 너무 멀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너무 장거리라 힘들게 느껴졌고 성도들이 찾아가기에도 부담이 되리라 생각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모로 부담되는 것들이 많아서 케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계속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다시 감동케 하고, 또 감동케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말랑가 교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랑가 교인들이 간절한 기도가 영적으로 느껴졌

습니 다. 그리고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논의하고 주일 저녁에 말랑가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현재 말랑가라는 지역에 목회자도 없고, 성도 장년 80여명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교회공동체가 이전에는 큰 나무 그늘 밑에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 전부터 그 자리에 낡은 판자로 지붕과 벽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예배터를 준비하였고, 자신들이 손수 벽돌을 굽고 자신들 손으로 헌신하여 지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도울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배당을 지어지면 교회로도, 학교로도, 여러모로 사용하며 복음의 통로로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말랑가는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답사에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 가지고 갑니다. 성도들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에 제가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가시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저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 가운데 바라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른 비의 기적 I

늦은 비의 기적 II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끼니를 걱정했던 이은태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이은태 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태 지음 / 2권 252면 / 13,000원

위클리프를 비롯한 17개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MEC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20여 년간 2,3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6 전화 745-1007 **금란출판사**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자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한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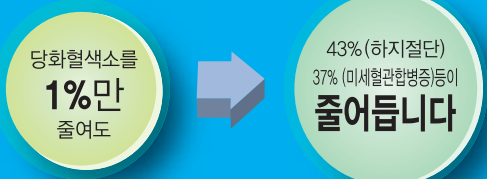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로키대표 제1과대학 송문기 박사
- 1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100여건의 병원에 분과 연구수사
- 미 연방제약(군인명)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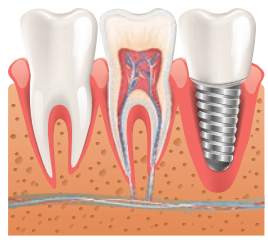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수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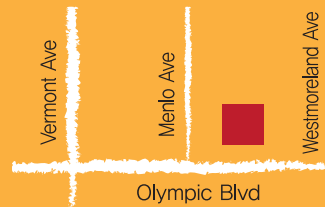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65
Stand X-Banner



\$160
(디자인 포함)

\$140
Retractable Banner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media@gmail.com

[인터뷰]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죄인의 과수? 네, 제가 그렇습니다”

헐기왕성했던 20대의 젊은이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한 뒤 마침내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에 노점상을 차린다. 메뉴는 떡볶이.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의 창업 아이템이 고작 떡볶이 라니. 하지만 그는 보란 듯이 해냈다. 전국에 점포만 90개가 넘는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40). 누군가에게 떡볶이는 그저 하찮은 음식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떡볶이는 국대, 곧 국가대표 ‘쏘울푸드’였다.

승승장구했다. 주변에선 그를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 불렀다. 그만큼 부(富)도 따랐다. 외제차를 타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다. 그러던 중 친구를 따라 난생처음 교회를 나갔다. 그리고 그해 여름 미국으로 ‘창조과학탐사’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존재에 눈을 떴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순간. 불과 3년 전 일이다.

그 뒤로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알아 갔다. 그럴수록 김상현 대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무엇보다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갔다.

“신앙을 갖기 전에도 전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으며, 정말 착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테고.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짐했으며,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좀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죄인의 과수? 네, 제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했던 저의 선은... 위선이었습니니다.”

김상현 대표와의 만남은 한 마디로 충격, 신선한 충격이었다. 막연히 머릿속에 그렸던 전형적인 CEO의 모습이 아니어서 그랬고, 단순했지만 깊고 강했던 그의 신앙 때문에 또 한 번 그랬다.

기독교인에게 돈과 성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돈은 왜 벌어야 하고 유혹은 없었는지 등을 물을 때마다, 과장을 조금 보태, “복음”과 “영혼 구원”이라는 단 두 마디로 답을 끝내 버리는 김 대표. 당혹스러움은 그대로 기자의 몫이었다.

‘아, 내겐 회사가 이삭이었구나!’

그렇다면 그는 왜 돈을 벌까? 결



김상현 대표에게 떡볶이는 ‘쏘울푸드’다. 인터뷰 하는 김 대표 뒤에 씌인 글귀가 재밌다. 튀김은 ‘바삭하게’ 순대는 ‘촉촉하게’ 오뎅은 ‘무식하게(?)’... 인생은 ‘졸깃하게’ ©김진영 기자

론부터 말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다. 가령 이런 것이다. 직원을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만한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돈을 빌렸다. 만약 갚지 못하면? 김 대표는, “빛은 남의 돈을 쓰고 주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죄고, 따라서 죄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게 바로 빛이라는 것. 이처럼 돈은 그에게 적극적인 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고,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다. 그렇기에 돈을 보는 시각도 매우 단순하다. “돈을 사랑해선 안 되고, 성실하기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것. 딱 여기까지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이미 눈치챌겠지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 돈을 아무리 좋은 데 써도,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도 했다. 그래서 사업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겐 전도의 대상이다. 돈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잠시 손해가 나도, 그

는 그것을 손해로 생각하지 않는다. 영혼 구원을 위한 양보일 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게 명확해지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잠시 그가 CEO인지 목사인지 헷갈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집요하게 물었다. ‘어찌 연약한 인간에게 믿음의 시험이 없으리!’ 이런 믿음(?)에서 캐묻듯이..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그가 잠시 침묵했다.

“사실 2015년 말, 회사가 부도가 날 뻔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좇았는지를. 그렇게도 습관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 망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선교해야지요.’ 하지만 이런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몰락을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그리고 돈을 놓기 싫어한 저의

비겁한 핑계일 뿐이었지요.”

“그래서, 극복하셨나요?”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고 교만했었는지. 그러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때 비로소 감사사 터졌어요. 처음으로 고난이 복임을 알게 된 순간이죠. 회사는 다행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설사 망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흔히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만약 진짜 망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돈이나 명예, 세속적인 성공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적 신앙이 좋다는 소리도 듣는. 그런데 그만 실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이곳에서 그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해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삶을 즐기기도 시간이 부족했으니깐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암에 걸린 걸 알게 됩니다.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감옥과 암이라는 건 분명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고난이자 시련일 뿐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기만 한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전 믿습니다.”

직원들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그는 어찌 이토록 ‘신앙적’ 차라리 ‘근본적’이라고 부르고 싶은 정도다?인 것일까? 그것도 목사도 아닌 사업가가. 그래서 다시 ‘기자 정신’을 발휘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해보면 됩니다. 십일조? 그냥 하면 되고, 전도?

그냥 하면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 잘 결단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럽여행은 어찌면 그리도 잘 결단하는지. 그렇게 바쁘다가도, 큰마음 먹고 시간을 쪼개줍니다. 이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특별히 한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보세요. 결코 믿음과 실재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테니.”

“대체 얼마나 죄인이셨기에(웃음)...?”

“회사의 성장이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 탓을 했죠. 그들이 잘 못 따라온다고. 하지만 금세 제 잘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일을 정말 잘 하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직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돕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아는 게 없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때부터 여기 저기 찾아가 다치는 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은 어떻게 하고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서 제 민낯을 발견했어요. 남 앞에 고개 숙이는 걸 어려워하는 절 보았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교만한이 꿈틀댔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이가 더 성공할 걸 보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온 직원들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했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사랑은 진정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게 바로 제가 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진로를 고민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하고 싶은 것보다 잘 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해 보라는 거죠. 혹시 아직 꿈과 비전이 없다고 걱정하는 이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지는 믿음입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는 믿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김진영 기자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사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옆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불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볕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불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원산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CD/MP3
메그린8 원형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자서전(대필)전문

■ 자서전 쓸 분
■ 대한민국출생 8.15와 6.25등 많은 경험 후 지금 성공 자리에 서신 분

자녀들과 같이 자서전 쓰고 싶은 분 연락바랍니다.

자서전(대필)전문 작가(시인·박사)
T. (213) 618-150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강추!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안전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기독교일보 신문사가 주최하는 여행이라 믿음이 가고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 여행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

10월

추억만들기 단풍여행 **1박 2일**

비숍 단풍

가을이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황금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비숍에 가보자.
맘모스레이크와 준레이크에서 발원된 단풍의 불길은 사브리나 호수(Lake Sabrina)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199 10/10(목)~11(금) 1박 2일

11월

기차 타고 떠나보자~

샌디에고 여행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샌클라멘테 피어, 렉시 뷔페, 발보아 파크

\$99 11/9(토) 당일

Tel. 213.434.1170
Tel. 213.739.0403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인생과 해석

철학이 삶의 무기?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 무기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미구치 슈 | 김윤경 역
다산초당 | 336쪽

일상의 고민부터 비즈니스 전략까지,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철학적 사고법

철학을 배워서 얻는 가장 큰 소득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인생은 해석이다. 우리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고, 해석 중심이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원하지 않는 일도 찾아온다.

인생의 사건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해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인생의 사건이 통제 불가능이라면, 해석은 통제 가능하다. 해석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불행한 사건과 힘든 일을 다 겪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도 사건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요셉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다시 만난 후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요셉은 패배자 같은 인생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인생의 승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다스릴 능력이 아니라,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남다른 인생을 사는 비결은 남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해석하는 능력이 힘이다.

내일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며 필요한 무기가 있다. 해석하는 능력이다. 오늘도 힘든 상황들은 우리를 공격한다. 사람들로부터 조금 안 좋은 말만 들어도 힘들어하며 못 견디다.

그게 인생이다. 모두 그렇게 산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할 때 의미가 있다. 해석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철학 배워야 하는 이유

1. 상황 정확하게 통찰하기
2. 비판적 사고 핵심 학습
3. 어젠다(과제)를 정하기
4. 같은 비극 되풀이 않기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해석의 힘을 잘 보여준다. 저자는 책을 통해 철학자들이 해석하는 과정을 알려준다. 먼저 책의 1부는 철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한다. “철학을 배워서 얻는 가장 큰 소

득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열쇠를 얻게 해 준다는 점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철학자가 문제를 마주한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답을 세상에 내놓는다. 더 이상 그 해답으로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현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철학자가 비판하며 다른 답을 제안한다. 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제안→비판→재제안이라는 흐름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

철학자는 세상의 질문에 자신의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다. 그 해석에 다른 반론이 있기 전까지 철학자의 해석은 정론이 된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관은 ‘변화’를 만들어 낸다.

셋째, 어젠다를 정한다.

“어젠다는 ‘과제’를 뜻한다. 과제를 정하는 일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 혁신은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실현되게 마련이므로, 과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다.”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해결하고 싶은 과제 또는 어젠다가 없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는 캘리그래피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기에, ‘컴퓨터 폰트는 왜 이렇게 안 예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렌즈로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하다.

넷째,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과거 수많은 철학자가 동시대의 비극을 마주할 때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고뇌하고 이야기하고, 또 글로 남겼다. 인류는 지금까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며 교훈을 얻었다.”

철학을 배우는 것은 과거에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배우는 것이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기존 철학 책들과 조금 다

르다.

저자는 세상에 철학 인문서가 많이 있는데, 굳이 똑같은 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기존 철학 입문서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새롭게 해석해 새로운 목차를 구성했다.

고대 철학자들을 시간 순서가 아닌 실용적 측면에서 크게 ‘사람, 조직, 사회, 사고’라는 주제로 구분했다. 저자는 이 네 가지 주제를 ‘지적 전투력을 최대화하는 50가지 철학 사상’이라고 말한다.

“본래 철학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커다란 시스템의 일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극히 평범한 사람이 ‘더욱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공헌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책 2부에서는 네 가지 주제로 구분된 철학자 50명의 사상을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장별로 2-3쪽 구성이다. 철학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철학의 결과만 보여주지 않고,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철학에 좌절하는 이유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모든 철학자의 생각은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물음의 종류와 배움의 종류다. 물음의 종류는 ‘What’과 ‘How’, 배움의 종류로는 ‘프로세스’와 ‘아웃풋’이 있다.”

물음의 종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시한 것이 되어 버렸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답한 물음은 현재 해답 대부분이 잘못되었거나 새롭지 못한 것이 많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열심히 50쪽 정도 읽다가 포기한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해답은 새롭지 못할지 몰라도, 해답을 찾아가는 철학자들의 생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자극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삶 보호하는 것 최고 무기 철학자들 장점 ‘해석’의 힘 보여줘 하나님 방법으로 해석 능력 필요해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그 가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여 마침내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든지 쉽고 빠르게 배우고 싶어한다.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원한다. 그러나 이런 인생은 가벼운 인생이 된다.

인생은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론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지나가기도 한다. 그럴 때 가벼운 인생은 견디지 못한다. 자신의 인생을 보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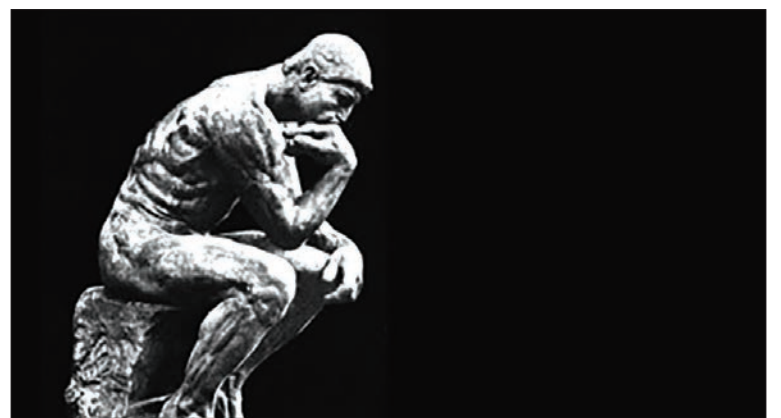
무기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철학자들의 장점인 ‘해석’하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해석’이 우리의 무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해석한 것을 통해 바라본다. 좋은 해석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해석하는 능력이 변한다면 우리 인생도 새롭게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창립 9주년 9th anniversary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감사예배

Santa Monica Korean Church Celebration Worship & Concert with Kim Quartet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창립 9주년 ‘Kim Quartet’와 함께 하는 음악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19년 10월 6일(주일) 오후 1:30

Sun., Oct 6th 1:30 PM

장소 :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Santa Monica Korean Church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초청강사 **하상훈** 목사
Rev. Dr. Sang Ha
현 인천하나교회 담임
Korea Theological Seminary
Dallas Baptist University
Fuller Seminary
BA, MA, M.Div., Dmin



김우영 소프라노
Mrs. Helen Kim, Soprano
전 LA영락교회 찬양자
현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사모
Yonsei University (voice)
Texas Christian University (voice)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오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함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원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플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꽃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Cl	바다염 (Na)
칼륨 K: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Cl	
마그네슘 Mg: Cl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515g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10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50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올가늌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 예방에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에서 경험하세요